

완도군,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본격화...“기후변화 대응 앞장”

신우철 군수 NASA·美에너지부 방문...인증·연구 협력 논의
해조류 양식·기술 우수성 설명...미래 에너지원 활용 ‘주목’

완도군이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과 미래 산업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에 본격 착수했다.

25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우철 군수가 최근 미국 항공우주청(NASA)과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 고등계획원(ARPA-E)을 방문해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및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조류 블루카본은 해양생태계가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를 의미하는 블루카본(Blue Carbon)의 한 유형으로, 해조류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

을 뜻한다.

이번 방문은 해조류가 건강식품, 미래 식량, 블루카본 등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완도 해조류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련 인증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NASA는 2021년 완도 해조류 양식장의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완도의 따뜻한 기온과 완만한 조수 차가 해조류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고 친환경적이라고 언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신 군수는 NASA 관계자들에게 완



신우철 완도군수가 미국 항공우주청(NASA)을 방문한 가운데 해조류 관련 책자를 들고 완도 해조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도의 해조류 양식 기술과 우수성, 해조류 블루카본으로서의 가치를 직접 설명

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블루카본 인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군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완도 해조류 양식장에 대해 다시 한번 재조명해 줄 것”을 요청했고, 로라 로렌조니 NASA 해양생물·생물 지구화학 책임자는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정되면 완도군의 해조류 양식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군수는 NASA에 이어 ARPA-E도 찾았다. ARPA-E에서는 지난 1월 한미 에너지부 국제 공동 연구 개발사업(2025-2029)인 ‘외해 해조류 양식 기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 대상지인 완도군을 방문한 바 있다.

‘외해 해조류 양식 기술 시스템’은 외

해에 자동화·기계화 시설을 구축해 부침식(부상과 침강 방식)으로 대형 갈조류를 양식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매스 대량 생산 및 블루카본 발굴을 위해 최첨단 공법의 양식 기술이 투입된다.

신 군수는 에블린 엔 왕 ARPA-E 원장 및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완도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외해 양식을 통해 생산된 해조류를 해양바이오산업 소재 및 미래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 해조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7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상백도 일원에서 도서 해양생태계 공동 조사를 실시, 해양무척추동물 49종을 새롭게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은 조사단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제공>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해양무척추동물 49종 발견

국립공원공단 협력 상백도 생물다양성 공동조사 결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5일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인 상백도에서 생물다양성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양무척추동물 49종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 자연보전국 소속 및 산하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공원공단이 함께 도서·연안 생물다양성을 전문적으로 조사한 사례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협업기관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등이, 산하기관에는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

원관 등이 참여했다.

상백도는 남해 해역 중앙에 위치한 섬으로,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아 높은 생물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상백도를 2016년 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국가유산청은 2011년 상백도를 자연 명승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 7월 진행된 공동조사에서는 상백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해양무척추동물 47종과 국가보호종 2종(둔하진총산호, 긴가지해송)이 발견됐다. 이는 2023년 발견된 ‘섬 지역 무척추동물(곤충 제외)’ 종목록에 기록된 상백도 관련

종 96종 외의 새로운 기록이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표본은 분류학적 검토를 거쳐 확정 표본으로 제작·보관될 예정이며, 이는 국가 생물주권 확립 및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유강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생물연구본부장은 “이번 공동조사는 도서·연안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생물자원 연구를 위한 성공적인 협력 사례”라며 “대학과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생물다양성 연구 확대 및 생물자원 보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정혜선 기자

강진 다산박물관, 올해 방문객 6만 돌파

‘반값 여행’ 등 적극적 관광정책 영향...지역민 소득증대 기여

강진군 다산박물관(사진)의 올해 입장객이 11월 6만명을 돌파하며 지난해 기록인 5만8천명을 넘어섰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다산박물관 입장객 6만명 돌파는 ‘누구나 반값 강진 여행’이라는 적극적인 관광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단체관광객과 가족단위 관광객도 크게 늘어 박물관의 인기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다산박물관은 조선시대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물 전시공간으로 현재 유물 100점이 전시돼 있다. 관람객들은 유물을 통해 다산의 학문적 업적과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의 공간으로 만난다.

다산박물관은 내년 5월11일까지 ‘자

산어보 특별전’을 열고 있다. 특별전은 정약전 선생의 저서 자산어보를 주제로 조선시대 해양생물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다산 선생과 동시대의 학문적 업적을 이해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배움을 선사하고 있다.

올해는 관람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박물관을 즐길 수 있도록 야외 잔디광장(3ha)과 수목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쾌적한 실내·외 관람 환경을 유지했으며 다산을 모티브로 한 포토존도 새롭게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내년에도 박물관 주변에 유채꽃밭을 조성해 봄철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유채 파종과 관



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박물관 앞 부지에 20억원 규모의 애절양 공원을 내년에 착공한다.

조형물과 탐방로 조성이 끝나면 총 5ha 규모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다산박물관 관계자는 “늘어난 입장객 수는 박물관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신안군 임자 재원도, 3상 전기 공급 시설 준공

20억 투입...해수담수화설비 운영 안정적 식수 공급 가능

신안군은 “최근 임자 재원도에서 3상 전기 인입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시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이상주 군의회 의장, 이정국 한국전력공사 실장,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재원도는 79세대 175명이 거주하는 작은 섬으로, 그동안 단상 전력 공급으로 전기 사용에 큰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안군은 총사

업비 20억3천만원을 투입해 3.7km의 선로 보강 및 배전철량 교체 작업을 진행하며 3상 전기 공급을 실현했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 해수담수화설비가 전력 변환 장치 없이 운영될 수 있게 되면서 안정적인 식수 공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어촌의 대규모 저온저장고 등 소득시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양홍기 기자

영암 배·포도, 대한민국 대표 과일 ‘우뚝’

농식품부 주최 선발대회서 5년 연속 최우수상 성과

영암군의 배와 포도가 대한민국 대표 과일로 선발됐다.

25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에서 영암군의 김영기 효담배 대표가 배 부문, 최병순 꿈꾸는농장 대표가 포도 부문 과장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한국과수농협 연합회 주관으로 올해 14회를 맞은 이 대회는 과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과일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과일산업 대전’ 개막식과 함께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엄선된 우수 과일이 출품돼 과원·외관심사를 거쳤다.

배와 포도 부문 최우수상으로 영암군은 2020년 이후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전국 최고 과일 생산지의 명성을 높였다.

김영기 대표는 28년 농사 경력을 바

탕으로 배 ‘그린시스’ 품종을 출품해 당도와 품질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0년 경력의 최병순 대표는 포도 ‘샤인머스켓’을 내놓아 특유의 풍미와 색택을 자랑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두 대표는 화학비료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과 천연 자재를 활용한 친환경 농법을 실시했고, 이런 노력은 당도와 색택 등에서 경쟁력을 높

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성과는 영암군의 천혜의 농사 환경과 솜씨 좋은 농업인들의 노력이 일궈낸 성과”라며 “대한민국 대표 과일 고장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이외에도 2022년 김영재 농가가 단감 부유 부문 대상, 2020년 이기열 농가가 배 분야, 2021년 문성문 농가가 단감 부유 분야, 2023년 박문수 농가가 단감 감풍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에서 받았다. /영암=나동호 기자



‘장세일호’ 영광군 공약사업 최종 확정

정책자문단 검토 거쳐 5대 분야 50건 결정

새로운 영광의 ‘장세일호’가 공약 사업을 확정해 군민과 비상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25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발전을 이끌어갈 5대 분야 50개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에 장세일 영광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실과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공약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정책자문단의 검토 사항과 실과소별 보고 내용을 수렴하고 자체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영광군은 군정 목표를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으로 5대 군정 방침을 ▲상생하는 지역경제 ▲감동주는 주민복지 ▲풍요로운 농산어촌 ▲오감만족 문화관광 ▲열려있는 공감행정으로 확정했다. 주요 공약사업은 지역경제(8건), 주민복지(21건), 농산어촌(9건), 문화관광(6건), 공감행정(6건) 등 5대 분야 50건이다.

장세일 군수는 “공약은 영광군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군민과의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공약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행복한 영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한파 예고’ 해남군,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한파특보 시 비상근무 실시 예정...제설장비 점검 등 대비 총력

해남군은 25일 “올 겨울 이상기후에 따른 기습 한파가 예고되면서 오는 2025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한파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대책 기간 동안 한파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대설·한파에 대비해 선제적 상황 관리와 단계별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한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읍면 재해취약 계층에 이불 200개를 배부했으며, 한파 쉼터 573개소, 임시주거시설 120개소에 대한 난방기와 안내판 등을 점검했다. 또한 폭설 시 효율적

인 제설을 위해 지난해부터 임대해 운용 중인 15t 덤프트럭 2대와 자체 보유 중인 살포기 등 제설 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친환경 제설제 28t과 모래 200㎥를 확보했다.

제설이 어려운 송지면 갈두재와 마산면 푸드락재, 북일면 오십재에는 원격으로 염수를 살포할 수 있는 염수 분사장치를 활용해 제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해남읍 코아루, 한들어린이집 경사로 2개소에 스마트 도로열선을 신규로 설치했다. /해남=박필용 기자